



NYK, 선가급등으로 당분간 신조발주 중단

Post-Panamax급 컨테이너선은 일부 발주

2008년-2010년 확보량 120척중 절반 확보

일본 최대선사인 NYK의 Takao Kusakari 회장은 현재의 선가가 너무 높은 관계로 당분간 신조 발주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신조 활동을 중단키로 했으나, 8,200TEU급 Post-Panamax급 컨테이너선 4척은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NYK의 신조발주 중단계획은 금년 3월에 동사가 발표한 중기 사업계획과는 차이가 있는데, 당시 동사는 2010년까지 278척의 신조선을 발주 또는 용선하여 880척까지 선대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사는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2008-2010년 사이에 120척의 선박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중 절반은 이미 확보하였다. Kusakari 회장은 신조 발주를 중단키로 했으나, 선대확장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조발주대신 타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NYK가 신조발주를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사가 2010년까지 추가 확보 계획인 60척의 신

조선 발주도 중단될 수 있으며, 만일 일본내 다른 대형 선사들도 NYK와 같은 신조선 발주중단 움직임에 동조할 경우 신조척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NYK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신조선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선소들이 3년치 이상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향후 1년 정도는 현 수준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010년까지 단일선체 선박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이들 선박의 대체선이 발주되어야 하는 점도 조선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선가와 관련하여 강재가격의 강세 및 해운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한 조선소들은 높은 선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박중개인들은 현재 남아있는 2008년 이내 납기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인도 시점이 먼 점을 감안할 때, 선주들이 신조선 발주를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하주회의 6월 26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

일본하주협회는 6월26일-28일간 고베에서 제2차 아시아하주회의(AS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ian Shippers' Meeting(ASM)은 일본, 한국, 홍콩의 3국 하주협회회의에, 기타 아시아 국가의 하주 단체가 참가하여 작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부산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는 3국 하주협회 회원사 이외에, 중국과 ASEAN 하주협의회연합(FASC)에 소속된 필리핀, 태국 하주협회가 참가했다.

아시아 하주대표자들은 본 회의에서 주요 해운항로의 운임 인상 동향, 항만 혼잡과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제반비용, 아시아의 THC 문제를 포함한 각종 하주부담 부대비 및 할증료 문제, 각국의 해사법 개혁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